

## 츠리(池莉) 소설에 나타난 ‘집’의 의미 고찰

최 은 정  
(계명대학교)

### ◆ 국문초록

본고는 츠리(池莉)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집’이 어떻게 의미화 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츠리는 신분의 상징으로서 집과 젠더수행의 장소로서 집에 주목한다. 첫째,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부호로서 ‘집’은 지식인(적)/소시민(적), 문명/비문명, 지식/지식 없음, 정신/반(反)정신, 우/열로 이항 대립항을 구성하고 있다. 츠리는 우월성을 속성으로 하는 집의 이면에 자리한 불합리성과 불공정을 발견함으로써, 신분의 부호로서 이분화된 집의 경계를 허문다. 그녀는 이러한 경계 허물기를 통해, 지식인(적)/소시민(적)으로 이분화된 ‘집’을 각각 정신과 물질에 상응하는 것으로 배치하고 우열을 논하는 데에서 비껴가면서, 화해를 모색한다. 둘째, 젠더가 (재)생산되는 장소로서 집을 해체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사적영역인 집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영역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이때 집은 여성이 경제적인 주체로서 재탄생하는 장소가 된다. 이로 부터 수동적이고 종속적으로 인식되어 온 여성성은 주체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성다움의 동일시로서 집을 재구성한다. 남성다움과 유착한 집은 강력한 남성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남성성의 훼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집’의 이러한 양가성은 사적영역인 ‘집’에서는 은닉되고 배제되었던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남성다움을 전유하는 ‘집’에 각인된 젠더질서 및 젠더관념을 전복한다.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성)의 발견을 통해, 젠더화된 ‘집’의 해체를 넘어 젠더화된 ‘일상’에 대한 해체를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츠리 서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제어 : 공적영역, 사적영역, 집, 신분, 부호, 젠더, 재생산, 해체

## 1. 들어가면서

주지하다시피, 집은 외부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갖는다. 집의 이러한 기능으로 인해, 집은 인간의 체험에 바탕을 두는 “장소감”<sup>1)</sup>인 안전함, 편안함 등과 연관된다. 인간의 경험에 따라 공간과 장소를 구분한 이-푸 투안은 안전을 의미하는 장소로 “집보다 나은 장소는 없다”고 하면서, 집이란 “오래된 가옥이며 오래된 이웃이고 고향이며 조국”이라고 정의했다.<sup>2)</sup> 이렇게 집이 인간의 경험에 따라 의미가 부여될 때, 집은 물리적인 건축물인 거주공간을 넘어, 개인이나 공동체의 “정체성의 토대”<sup>3)</sup>가 된다. “정체성의 토대”로서 집은 어디에든 있거나 교환될 수 있는 것이 아닌, 대체 불가능한 장소이다. 장소로서 집이 갖는 이러한 고유성과 개별성으로 인해 문학 속에 형상화된 집은 작가의 개별적인 인식을 투영함과 동시에 집과 관련하여 작중 인물의 개별적이고도 고유한 인식을 가능하게 한다. 그런데, 개인의 장소경험이 당대 사회문화적인 가치체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집은 당대 사회문화적 질서를 재현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현대여성서사에서 집은 중요한 문학적 키워드로서 작가의 개별적인 시선뿐만 아니라 그 시대 사회문화적인 담론을 반영하는 한 방편이 되어왔다.<sup>4)</sup> 중국현대여성서사에서 집은 제도나 관념으로서, 시대적인 담론을 대신했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딸의 시선에서 집은 억압적인 부권 또는 부권을 대리하는 어머니에 의해 점유되고 있고(冯沅君), 아내의 시선에서 집은 그녀가 거부했던 ‘어머니’의 역할이 자신을 통해 재생산되는 공간이거나(庐隐), 사랑이 소멸된 허위와 가식의 공간 또는 여성자아의 이상이 스러지는 공간(沉櫻)이다. 따라서 ‘집’은 여성이 자아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마땅히 분리해야 할 대상이었고, 이 때문에 집으로부터 ‘떠남’은 자아 찾기를 위

- 
- 1) 이-푸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회·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1995, 15쪽.
  - 2) 위의 책.
  - 3) 애드워드 랠프에 따르면, 집은 인간 존재의 토대이며 모든 인간 활동에 대한 맥락 뿐 아니라 개인과 집단에 대한 안전과 정체성을 제공한다. 애드워드 랠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97쪽.
  - 4) 高小弘, 『成长如蜃-二十世纪九十年代女性成长小说研究』, 人民出版社, 2011, 26쪽 참고.

한 첫걸음이 된다. 딸들이 경험하는 집은 안전과 휴식의 장소가 아닌, 억압과 규제의 장소인 것이다. 이러한 집은 중국 신시기 이후 보다 다양하게 분화된다. 딸들에게 집은 여전히 억압과 규제의 장소로, 딸들은 여전히 결핍, 불안, 억압 등의 장소감을 경험하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집에 대한 해체를 모색하는 모습을 보인다. 티에닝(铁凝)과 팡팡(方方) 등은 '남편 살해'<sup>5)</sup>서사를 통해 가부장적 폭력이 전시되는 공간으로서 집을 해체한다. 그런가 하면, 가부장적인 제도나 관념이 아닌, 물화된 지표로서 집에 대해 사유하기도 한다. 티에닝(铁凝)은 똑같은 집이 나열된 거리에서 집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개인의 모습을 통해 개별적인 정체성을 상실한 집/인간의 모습을 은유한다. (「安德烈的晚上」) 이 외에도 수많은 여성작가들이 집에 대한 다양한 시선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츠리 역시 적지 않은 작품을 통해 '집'에 대한 독특한 시선을 반영한다. 츠리는 일상을 문학으로 끌어온 가장 대표적인 작가 중 하나이다. 때문에 일상이 구현되는 가장 중요한 장소로서 '집'은 그녀의 작품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장이라 할 수 있다. 츠리의 시선에서 일상과 만나는 '집'의 가장 큰 특징은 물질성이다. 물질성과 만나는 집은 크게 두 가지를 의미하는 바, 신분/권력을 표상하는 장소로서의 '집'과 젠더가 수행되고 고착화된 장소로서의 '집'이다. 본고는 이러한 '집'이 츠리의 붓끝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해체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때 단순히 공간적 배경으로서 '집'이 아닌, 인물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인물의 경험에 의해 의미가 부여되는 유동적인 장소로서의 '집'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집'에 각인된 당대 사회문화적인 가치 체제를 고찰함과 동시에, 이에 대응하는 츠리의 시선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것이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5) 예컨대, 가부장적인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여 아내는 남편 거세를 기획하거나(铁凝, 「午后悬崖」) 남편 살해를 통한 자기만의 집짓기(方方, 「奔跑的火光」)를 시도하기도 한다.

## II. 신분의 부호로서 ‘집’의 전시와 해체

거주공간으로서 집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 경제적인 능력 등과 같은 개인의 생존현실을 읽어내는 부호로 인식되어 왔다. 츠리 역시 ‘집’을 통해 개인의 사회적인 생존현실을 부연한다. 개인의 생존현실을 은유하는 장소로서 집의 의미를 설정할 때, 「사랑을 논하지 말라(不谈爱情)」는 전형적인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츠리는 여주인공 지링(吉玲)의 집과 그녀의 남편인 좡젠페이(庄建非)의 집을 통해 개인의 생존현실을 은유하는 장소로서 집을 체현한다. 기실 자본화가 심화될수록 집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권력을 상징하는 부호가 될 수밖에 없다. ‘집’이 공적 단위를 통해 분배되는 중국 특유의 사회현실을 미루어보면, 집은 특히 개인의 신분/권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 중국 신시기 서사에서도 신분/권력의 키워드로서 집에 주목한다. 이로부터 ‘집’과 ‘집’의 차이로 인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을 드러내거나 권력의 획득 또는 상실의 궤적을 그려내는 것이다.<sup>6)</sup> 이에 비해 츠리는 신분에 따라 이분화된 집의 장소성에 주목함과 동시에, 그 경계를 해체하고자 한다.

여주인공인 지링의 집은 이른바 ‘소시민’의 삶이 구현되는 장소이다. 그녀의 집이 자리하고 있는 화로우 거리(花楼街)는 한때는 우한의 변화로움을 상징했지만, 지금은 “쇠락의 기운이 자욱하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박함”이 흘러 다니는, “악명이 자자한 곳”이다.<sup>7)</sup> “별 볼일 없는 말단직원”에 불과한 아버지는 조상 대대로 화로우 거리에 살아온 것을 영광으로 알지만, 그녀의 어머니와 다섯 명의 딸들은 그가 무능하고 유약하다며 혐오한다. 매일 같이 포커 판을 벌이는 것을 좋아하는 어머니는 지극히 속물적이다. 아버지에게 서슴없이 “비체충(鼻涕冲: 무능하고 시원스럽지 못한 사람을 비유)”이라고 욕하는 언니들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박함”이 흘러 다니는 화로우 거리가 체현된 장이다. 그녀의 형부들은 신발가게 점원, 간장공장 노동자, 철도에서 전철기를 쫓히는 사람, 무슨 일을 하는 지도 알 수 없는 자영업자

6) 邓玉环, 『中国当代文学中的“屋”与“人”』, 商务印书馆, 2014, 56-65쪽.

7) 池莉, 「不谈爱情」, 『池莉文集2』, 江苏文艺出版社, 1995, 64쪽, 70쪽. 이하 작품 인용은 본문에 표기한다.

이다. 이에 비해, 쑹젠페이(宋佳音)의 집은 지식인 또는 지식인의 삶을 대변한다. 호수가 산 위에 있는 쑹젠페이(宋佳音)의 집은 화로우 거리 오래되어 이끼 낀 건물들 속 지렁의 낡은 집과 대비되어 물질적인 부유함을 상징한다. 아버지는 혼고학을 연구하는 학자이고 어머니는 문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다. 여동생 또한 연구소 연구원이다. 지리는 특별히 쑹젠페이가 “지식이 풍부함” 집에서 성장하였음을 서술함으로써, 그의 집에 반(反)속물성 내지 반(反)물질성을 덧댄다.

한편, 츠리는 지렁이 그녀와 집을 분리하고 있음을 통해 그녀의 집이 상징하는 소시민적 삶의 열등성을 전시한다. 지렁의 가족들이 집에 대해 동일시를 이루고 있는 것과 달리, 그녀는 집과 자신을 냉정하게 분리한다. 이러한 그녀의 모습은 먼저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에 대한 욕망에서 잘 드러난다. “지렁은 어쨌든 뛰쳐나가고자 했다. 그녀의 집은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외국영화에 나오는 그런 예쁘고 깔끔한 집일 것이다.”(67쪽) 이러한 그녀에 대해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 역시 “화로우 거리에서 나고 자란 화로우 거리의 여자에”(67쪽)라며 그녀 삶의 경계선을 규정한다. 이는 구체적인 생활영역과 방식에 대한 규정일 수도 있지만, 그녀의 신분 내지 지위에 대한 규정이기도 하다. “두꺼비가 아무리 맵시 있어도 오 척 이상 뛰어 오를 수 없다”(67쪽)는 그녀 어머니의 말은 그 경계선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지렁은 “여대생” 모방하기를 통해 그 경계선을 넘나든다. “여대생”은 일종의 반(反)속물화된 기호로, 긴 치마 등의 단정한 옷차림과 열린 화장을 통해 가시화된다. 이렇게 지렁은 그녀 어머니와 언니들 같은 화로우 거리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를 연출함으로써, 화로우 거리로 구체화된 집과 자신을 철저히 경계 짓는 것이다. 그녀와 집의 분리는 취업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지렁은 아버지 대신 아버지 직장에 들어가라는 어머니의 강압과 위협에 맞서 스스로 일자리를 찾겠다고 선언한다. 그녀가 보기에 아버지가 하던 일을 이어받아 하는 것은 결국 그녀의 어머니, 언니들의 삶을 재생산하게 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는 몇 번의 이직을 거쳐 “신화서점”에 취업한다. 그녀에게 있어 “신화서점”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 나아가 화로우 거리에 사는 사람들을 구분 짓는 장소이다. “신화서점”에 대한 그녀의 만족감은 문명, 깨끗함, 지식이라는 세 글자를 통해 나타난다. “신화서점”의 문명, 깨끗함, 지식이라는 장소성은 그녀가 욕망하는 ‘현

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이 무엇보다도 정신(지식)적인 것에 수렴함을 설명한다.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과 정신(지식)이 동일시되어 있음은 지령의 결혼에서 보다 명확하게 나타난다. 우한대학에서 우연히 쥘젠페이와 알게 된 그녀는 그가 지식인 가정 출신의 지식인임을 확신하고 그와 결혼을 결심한다. 즉 지령은 쥘젠페이를 통해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에 대한 그녀의 욕망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다. 요컨대, 지령이 보여주는 자신의 집에 대한 거리두기, “여대생” 모방하기, “신화서점”이라는 일터에 대한 만족감과 자부심, 쥘젠페이와의 결혼 등은 정신적인 것에 대한 그녀의 욕망을 현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그녀의 욕망은 ‘집’이라는 장소를 지식인(적)/소시민(적), 문명/비문명, 지식/지식 없음, 정신/반(反)정신 등으로 이항 대립화하고 우열관계를 설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츠리의 시선에서 상술한 대립항들은 다분히 고정적인 관념의 소산이다. 때문에 그녀는 ‘집’과 ‘집’의 차이로 인해 빚어지는 갈등에 주목하면서, 이분화된 집의 경계를 해체하고 화해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츠리는 먼저 쥘젠페이의 집, 즉 그녀의 시집으로 구체화된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의 이면을 드러낸다. 이는 바로 불공정성이다. 그 불공정성은 신분적인 불공정성과 젠더 불공정성이다. 신분의 차이로 지령과 쥘젠페이의 결혼을 반대했던 쥘젠페이의 가족들은 이들이 결혼한 후에도 여전히 지령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들은 아들이 결혼하면 주기로 했던, 그들 집에서 가장 “큰 방”을 아들에게 주지 않고, 화려우 거리 지령의 친정에도 찾아가지 않는 것을 통해 지령과 지령이 상징하는 ‘신분’에 대한 거부감을 표출한다.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의 이면에는 극도의 편견과 배제가 자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쥘젠페이의 가부장적 젠더관념은 지령으로 하여금 이질감을 갖도록 한다. 쥘젠페이의 가부장적인 젠더관념은 ‘집’의 주체로서 남성에 대한 강한 인식이다.

“(중략) 당신은 내 아내야 당연히 내 집으로 돌아가야지.”

“흥, 당신 집.”

“당신 집이기도 하잖아.”(96쪽)

인용한 부분은 친정으로 돌아가 버린 지링을 데리러 간 쑹젠페이와 지링의 대화이다. 쑹젠페이는 무의식중에 “내 집”이라고 말했다가 지링의 말에 “당신 집이기도 하다”는 말로 모면한다. “내 집”이라는 그의 말은 자신을 지배적인 위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인식은 아내인 지링을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 바탕이다. 그는 지링을 그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집안을 청소하는 사람이자 성욕의 대상으로만 여길 뿐, 그녀를 “안중에 두지 않는다”(91쪽). 쑹젠페이의 가족들이 지링을 신분에 따라 수직적인 관계로 보고 있다면, 쑹젠페이는 지링을 남편과 아내를 종속 관계로 보는 가부장적 관념 하에서 수직적인 관계로 두고 있는 것이다.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의 해체는 “우리 엄마는 이렇게 했다”는 쑹젠페이의 말에 “난 당신의 엄마가 아니야!”라는 지링의 선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는 이어진 그녀의 가출에서 정점에 이른다. 그녀가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을 한마음으로 추구해왔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가출은 이러한 ‘집’에 대한 그녀의 이상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지링의 가출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부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녀의 가출은 이 ‘집’에 은닉되어 있는 신분적 젠더적 불공정성을 가시화하는 것이다. 즉, 그녀는 가출을 통해 이 ‘집’을 지배하고 있는 신분적 젠더적 질서를 흔들고 있는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녀의 가출 이후이다. 그녀는 이 ‘집’을 나와 화로우 거리 친정으로 돌아간다. 그녀의 친정이 ‘현대적인 문명을 갖춘 집’인 그녀의 시집과 대조되어 ‘소시민’적인, 일종의 반(反)정신적, 속물적, 비문명적인 속성을 전시하면서 열등성을 전유하고 있음을 떠올려보면, 그녀의 회귀는 이에 대한 해체라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그녀의 회귀를 이끌어낸 요소이다. 앞서 서술했듯, 지링은 ‘소시민’적인 친정집의 열등성을 줄곧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 열등성은 ‘집’ 본연의 장소감인 보호와 안식이라는 속성을 통해 극복되고 있다. 츠리는 이를 쑹젠페이의 시선을 통해 서술한다.

(지링은) 별 볼일 없는 부모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딸의 이자 보호막으로, 언제나 두 날개를 활짝 펴서 자식을 보호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점에서 쑹젠페이는 지링이 부러웠다. 그의 부모는 교양도 넘치니

이치상으로 따지자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감정이 풍부해야 맞다. 그러나 왜 그런지, 인류의 지식을 많이 배운 사람이 오히려 인류와 더 소원하다.”(104쪽)

지링이 “부럽다”는 좡젠페이(冼劍峰)의 고백은 그의 집과 지링의 집으로 구체화된 지식인(적)/소시민(적), 문명/비문명, 정신/반정신, 우/열이라는 이항 대립 관계를 해체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해체가 또 다른 형태의 우열관계를 양산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지링의 가족과 좡젠페이의 가족이 결국 서로에 대해 인정하고 소통하게 됨을 통해 알 수 있다. 즉, 츠리는 신분에 따른 ‘집’과 ‘집’의 차이로 인한 갈등과 모순에 주목하면서, 이의 화해를 모색하는 것이다. 신분의 부호로서 집에 대한 츠리의 시선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것이다.

### Ⅲ. ‘집’의 의미 확장과 여성성의 재구성

‘집’이 보호와 휴식의 공간으로 의미화될 때, ‘집’은 경쟁적이고 공격적인 외부세계와 대비되어 사적(내적)영역으로 분리된다. 일상을 공적(외부)영역과 사적(내적)영역으로 나누고 여기에 일터와 집을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공적/사적으로 분리된 일상이 실은 “가부장제가 (재)생산되고 도전받는 현장”이 된다.<sup>8)</sup> 공적/사적으로 분리된 일상공간에 각각 남성과 여성을 배치하여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규정하고 이에 따른 젠더 수행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9)</sup> 젠더와 관련하여, 집에 대한 츠리의 사유는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한다. 즉, 이미 통념화된 공간분할의 이분화와 이에 따른

8) 질리언 로즈에 따르면, 일상의 가장 억압적인 측면이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에 있다. 공적/사적 구분이 가부장적 권력과 결부되어 있다는 것이다.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옮김, 한길사, 2011, 64쪽.

9) 린다 맥도웰은 공간 분할의 규칙과 장소성이 여성됨 또는 남성됨의 문제와 긴밀한 연관성 속에서 구성되고 협상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때문에 각각의 장소에서 통용되는 공간의 규칙은 성적 차별화와 긴밀하게 연관된다고 본다.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0, 8쪽.

젠더를 재사유하고 있는 것이다.

「당신은 한 줄기 강(你是一条河)」은 이러한 이분법적인 공간분할 및 젠더규범에 대한 초리의 시선이 잘 나타나 있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평소와 다를 바 없던 밤, 불길에 무너져 내리는 건물 속 남편의 처참한 모습을 목격하면서 몸부림치는 라라(辣辣)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뜻밖에 과부가 되어버린 서른의 라라에게는 일곱 명의 아이가 남아 있었다. 열세 살 된 큰 아이부터 이제 갓 두 돌이 된 쌍둥이에 더하여 4개월 된 뱃속의 아이까지, 이들을 앞에 두고서 라라는 물에 뛰어든다. 시동생에 의해 목숨을 건진 후, 그녀는 마을 무당을 통해 남편의 당부를 전해 듣게 된다. 일곱 아이를 잘 키워달라는 남편의 당부에 라라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는다.

그렇지만, 일곱 명이라는 적지 않은 자녀들이 먹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벌이와 아직 그녀가 돌보아야 할 어린 아이들을 생각할 때, 라라가 할 수 있는 노동은 사실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일곱 아이와 함께 남겨진 라라를 염려한 마을 간부가 그녀에게 공장에 나와 일할 것을 권유했을 때, 그녀는 집·밖에서의 노동 대신, 집·안에서의 노동을 선택한다. 그녀가 사는 마을에 “이미 가내공장이 확산되었다”<sup>10)</sup>고는 해도, 남편이 살아있을 때 라라에게 ‘집’은 아이를 양육하는 공간이었다. 그녀에게 부여된 가장 큰 역할은 아이를 낳고 기르기였다. “신체 건장한 왕셴무(王贤木)가 살아 있을 때 라라는 산아 제한의 문제를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창녀나 아이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31쪽) 그러나, 라라가 집·안에서의 노동을 선택하면서, 라라에게 있어 ‘집’은 생계를 위한 공장으로 변모한다. “연밥을 잘게 다지고, 삼밭줄을 꼬고, 돼지털을 골랐다. 엉성한 반제품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한 반제품으로 다듬었다. 일한 대로 돈을 주었기 때문에 많이 하면 많이 벌었다.”(37쪽) 나이대로 일감을 분배받아서 일을 해내는 아이들과 그런 아이들에게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끊임없이 독려하는 라라의 모습은 일상적으로 상상하는 '집'의 풍경과는 사뭇 다르다. 이 집에서 아이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하는 물건의 ‘질과 양’이고, 물건의 ‘품질이 나쁘면’ 엄마는 아이들에게 벌을 준다고 엄포를 놓는다. 이렇게 ‘집’이 좋은 물건을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변모한 순간, 라라는

10) 池莉, 「你是一条河」, 『池莉文集3』, 江苏文艺出版社, 1995, 37쪽.

‘엄마’가 아닌 “작업반장”이 된다. 아이들에게 라라는 “부지런히 일하는 본보기”이다.(38쪽) 이처럼, 라라의 집은 아이들과 함께 먹고 사는 사적영역이자 경제활동의 근원인 공적영역으로서 이중성을 겸하게 된다.

집이 사적영역을 넘어 공적영역인 경제활동의 장소로 재구성되는 순간, 라라의 여성성 또한 변모를 겪는다. 경제적으로 수동적이고 종속적인 존재로서 ‘아내/엄마’인 라라가 주체성과 독립성을 획득하게 되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주체로서 자라의 자립이 의미 있는 이유는 이것이 그녀가 자신의 정체성을 재인식하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데 있다. 이는 라라가 재혼을 통한 삶의 모색을 거부하는 데에서 알 수 있다.

시집가서 뭐 하나? 그녀가 아이도 잘 낳고 일도 잘 한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이 그러는 거다. 그러나 그녀는 바보가 아니다. 남은 평생 더 이상  
무슨 남편을 어르신으로 알고 모시지는 않겠다.(47쪽)

재혼은 라라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마을 남자들은 쌀을 자루로 가져오거나 직접 잡은 생선을 들고 와서 라라에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구혼의 표지로 등장하는 쌀 또는 생선은 가장 일상적이지만 중요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안이 결혼(라라에게는 재혼)이며, 그 문제의 해결 주체가 남성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라라는 이 모든 구애를 거부한다. 그녀가 보기에 결혼이란 남편을 “모시는” 아내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 대신 종속화 되는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주체로서 남편이 주축이 될 때 이루어지는 가족질서에 대한 거부인 것이다.

그런데, 여성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은 곧 남성성 또한 고정적이지 않음을 시사한다. 츠리는 이를 라라의 남편인 왕센무를 통해 보여준다. 라라의 남편 왕센무는 건장한 남성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불이 났을 때 수많은 사람이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왕센무만이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은 그의 건장한 남성성이 허상임을 반영한다. 마을 기녀와 그의 관계가 공공연하게 드러나 있고 라라가 이를 감내하고 있는 것은 젠더 질서의 불공정성을 보여주면서 남성성의 우위와 억압된 여성성을 전시한다. 하

지만 갖 두 돌이 지난 쌍둥이 아이가 실은 라라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라는 점은 남편 왕셴무의 강력한 남성성에 대한 조소이다. 딸/누이보다 무능력한 아들/오빠와 대리남편/대리아버지를 욕망하는 왕셴량(王賢良)의 허약한 남성성 역시 전통적인 젠더관념이 규정하는 남성성에 대한 고정성을 깨뜨린다. 이처럼, 츠리는 유약한 남성성의 발견을 통해 남편 또는 아버지의 부재를 대리하는 대리 남편/대리 아버지의 구도에서 비껴난다. 구원자 또는 조력자로서 남성을 근원적으로 차단함으로써, 라라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한층 더 강화해주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츠리는 사적영역으로 규정된 집을 공적영역으로 확장함으로써 이분화된 공간분할의 법칙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그녀는 공적/사적영역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젠더 규범 또한 퇴색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이로부터 공적/사적, 밖(일터)/안(집), 남성(적)/여성(적), 독립/의존, 권력/권력의 부재 등으로 이원화된 구조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공적/사적 영역의 분리에 따른 젠더규정이 결코 고정적이거나 절대적일 수 없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분법적 공간분할 및 젠더구분에 대한 츠리의 비판적인 시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 IV. 남성다움의 전시와 전복

전통적인 젠더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집'은 남성에게 있어 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한 동일시이다. 이는 가족부양자로 규정된 남성성에 기반을 둔다. 이영자에 따르면, 남성성은 “가부장제의 집합적 기획과 실천”으로, “개인적·집단적 실천으로서의 남성성은 젠더시스템이 규정하는 남성성이라는 성의 이념형”이다.<sup>11)</sup> 이때 노동시장은 젠더시스템의 주요한 축 중 하나로서, 여기에서 남성을 가족부양자로 규정하는 남성성이 생산/재생산되는 데, 이는 남성으로 하여금 가족을 (필수룩 잘) 먹여 살리는 존재라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일생 동안 돈벌이와 직업적 성공에 몰두하도록 추동한다.<sup>12)</sup>

11) 이영자,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의 정치」, 『성평등연구』 5호, 2001, 85쪽.

12) 위의 논문.

가족들은 남편이자 아버지인 남성의 경제력에 의존하고, 남성은 가족부양의 책임을 수행함으로써 그 역할을 인정받는 것이다.

가족부양자로서 남성성이 규정될 때 남성이장은 경제력과 동일시되고 그의 가치는 경제력, 즉 물질에 의해 결정된다. 쓰리의 시선에서 남성이장의 가치를 결정하는 물질의 정점은 ‘집’이다. 즉, 사회경제적 능력의 구체화로서 ‘집(=물질)’과 남성다움이 등가를 이루는 것이다. 이때 ‘집’은 남성/남편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에 따른 성별의 정치학이 구현되는 장소이다. 쓰리는 성별의 정치학이 구현되는 장소로서 ‘집’에 각인된 전통적인 젠더규범과 젠더질서에 주목하면서 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사회경제적 능력의 구체화인 ‘집’이 남성다움과 등가를 이룰 때 집이 내포할 수밖에 없는 양가성 때문이다.

이게 사람이 사는 곳인가? 돼지우리지. 이 돼지우리도 내가 얻은 거야! 사내대장부가 아내와 자식이 있으면 아내와 자식을 부양할 집이 있어야지! 무능력하게도, 말 한마디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그게 무슨 남자야!<sup>13)</sup>(2쪽)

인용문은 「번뇌하는 인생(煩惱人生)」에서 남자주인공인 인자후(印家厚)의 아내가 남편인 인자후를 비난하는 내용이다. 아내는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남편을 “무능력하다”고 비난한다. ‘집’과 남성다움의 유착은 이러한 남편에 대해 “그게 무슨 남자야!”라고 쏘아붙이는 데에서 정점에 달한다. 그런데, 남편에 대한 아내의 거침없는 비난은 남성자아의 사회경제적 능력의 여부에 따라 남성에게 있어 ‘집’이 남성다움의 약화 또는 훼손을 경험하는 장소가 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

남성자아의 성장담이라 할 수 있는 「즐거우면 소리 질러라(有了快感你就喊)」는 집의 이러한 양가적 장소성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거실’로 대표되는 ‘집’은 전통적인 젠더관념이 수행되는 장소이자 도전받는 장소이기도 하다. 남편인 비엔롱다(比恩龍大)가 거실의 한 중앙에 놓인 소파에 다리를 펴고 앉는 것은 선물을 들고 들어오는 날이다. 이 때

13) 池莉, 「煩惱人生」, 『池莉文集2』, 江苏文艺出版社, 1995, 2쪽.

그의 아내는 그를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해온다. 이러한 남편과 아내의 모습은 가족부양자로서 남편과 그런 남편을 시중드는 아내의 역할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남편이 들고 오는 “선물”은 그의 사업적인 성공 내지 순조로움을 보여주는 것으로, 가장으로서 남성적 정체성을 가시화한다. 아내가 공손하게 받들고 오는 차는 가장으로서 비엔롱다의 남성성에 대한 아내의 긍정인 셈이다. 이때 ‘거실’은 가부장으로서 책임과 역할수행에 대한 남성자아의 동일시로, 전통적인 젠더관념에서 규정하는 남성다움을 전유한다. 다시 말해, ‘거실’은 강력한 남성성을 재생산하면서 남성우위의 젠더질서가 수행되는 장소인 것이다.

그러나, 비엔롱다가 경제적인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순간, 그는 완전히 다른 ‘거실’의 장소감을 경험한다. 이는 아내의 사업적인 성공과 맞물려 나타난다. 그녀의 사업적인 성공 역시 “선물”을 통해 드러나는데, 남편인 비엔롱다는 ‘선물’이 상징하는 아내의 성공을 기뻐하거나 축하하기는커녕 부끄러움과 분노를 느낀다. 그리고 그의 장소는 ‘거실’에서 ‘방’로 이동한다. 아내가 ‘선물’을 들고 오게 된 순간, 즉 그가 경제력의 위기를 경험하는 순간부터 그는 ‘거실’을 일탈하여 ‘방’으로 피하는 것이다. 왜 그러한가. 빈손인 그에게 ‘거실’은 아내의 차가운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장소이다. “선물”을 들었을 때 거실은 그의 남성적 우월감을 전시해주지만, “선물”을 들 수 없는 상황에서 ‘거실’은 그의 남성성을 위축시킬 뿐인 것이다. 그래서 그는 가장으로서 그에게 권력을 부여하기도 하지만 권력상실을 경험하게 하는 ‘거실’을 일탈하는 것이다. 남성다움의 상징인 ‘집’이 내포하는 양가성인 것이다.

집에 대한 츠리의 이러한 시선은 「물과 불의 혼재(水与火的缠绵)」에서 보다 더 응축되어 나타난다. 여주인공 청망망(曾芒芒)의 남편 까오용(高勇)은 삶의 목적과 의미를 집에 둔다. 그가 공부하고 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까오용은 청망망에게 줄곧 ‘크고 깨끗한 집’에 대한 환상을 부여하는데, 망망은 까오용이 그녀에게 그려주는 이 환상에 동참하고, 그 환상 속에서 행복을 맛본다. 이들에게 있어 그 환상을 실현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까오용의 대학원 진학이다. 까오용은 결혼을 앞두고부터 대학원 시험 준비를 시작하는데, 이와 동시에 청망망의 일상은 수험생인 까오용을 중심으로 설계되기 시작한다. “만약 까오용이 박사가 되면, 망망, 너

는 박사 부인이 되는 거야. 사회적인 지위며, 집이며 월급이며 외국에 나가서 강의하는 것이며 모든 대우가 다 높아져.”<sup>14)</sup>라는 시어머니의 말은 남편의 성공이 곧 아내의 성공이라는 전제 하에 남편의 보조자로서 아내의 역할에 대한 젠더의식이 깔려 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집’이 상징하는 남편의 성공을 두고 지배/종속의 관계로 수직화 되고 있는 것이다. ‘크고 깨끗한 집’에서 살게 해주겠다는 남편의 꿈이 아내의 행복을 소환하고 나아가 이들이 공통의 이상을 갖고 나아가도록 추동하는 매개이기도 하지만, 보다 분명한 것은 이들의 관계를 수직화 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이다. 이는 까오용이 그리는 ‘크고 깨끗한 집’에서 남편과 아내의 장소 및 역할이 명백하게 나누어져 있는 것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그는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해야 한다. 그는 청망망을 더 큰 집에서 살게 하고 싶었다. 커다란 유리창으로부터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양탄자는 풀밭처럼 깨끗하고 부드러웠다. 망망은 가느다란 허리에 앞치마를 두르고 서재를 사뿐사뿐 지나간다. 이는 얼마나 아름다운 이상인가!(210쪽)

“망망, 난 정말 당신이 이렇게 살게 하고 싶다. 넓은 집, 사방엔 바다까지 내려오는 커튼이 있고, 서재에는 천정까지 닿는 책장이 우뚝 서 있고, 커다란 책상, 가득 쌓인 책들과 담뱃대는 당신이 매일 정리해주는 거야.”

“까오용, 난 당신한테 이런 얘기 듣는 거 정말 좋아!”(247쪽)

까오용이 그리는 ‘크고 깨끗한 집’은 서재에서 공부(일)하는 남편과 앞치마를 두른 아내로 구체화되어 있다. 서재로 구체화된 집은 까오용의 사회적 성공이나 신분, 그의 경제적 능력에 대한 동일시이다. 청망망은 이 서재를 아내가 매일 정리해주길 기대하는 남편의 이상을 기꺼이 자신의 이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남성다움의 수행에 대한 청망망의 긍정에서 기인한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망망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깨끗한 집’의 환상 속에서 일하는 아내, 공적영역에서의 아내는 없다는 점이다. 결국, 남성다움이 표상하는 집은 성별분업을 확대 재생산하는, “여

14) 池莉, 『水与火的缠绵』,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0, 108쪽.

성의 가정생활과 남성의 노동시장을 대비시키는 공/사 이분법<sup>15)</sup>에 따른 성별분업이 고착화된 장소에 다름 아닌 것이다. 동시에, 사회가 자본화되어 갈수록 물질(경제활동)을 매개로 하여 이러한 성별분업이 한층 강력해질 수 있음을 시사해주는 장소이기도 하다. 기실 여성의 사회적 참여가 보편화된 당대 중국사회에서 여성의 영역은 더 이상 집이라는 사적영역에 제한되지 않는다. 여성의 가정생활과 남성의 노동시장을 대비시키는 공/사 이분법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크고 깨끗한 집'에 대한 까오옹과 청망망의 기대는 관습적 이념적으로는 여전히 일상공간의 젠더에 따른 이분화가 수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목해야 할 것은 츠리가 포착하고 있는 '크고 깨끗한 집'의 이중성이다. 츠리가 보기에, '크고 깨끗한 집'은 이처럼 젠더질서와 젠더규범을 확대재생산하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에 도전하고 이를 전복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왜 그러한가. '크고 깨끗한 집'이 구현하는 전통적인 젠더관념과 젠더질서가 '크고 깨끗한 집'으로 구체화된 물질, 즉 공적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공적영역에서의 사회경제적 능력에 따라 사적영역인 '크고 깨끗한 집'의 젠더 전복 가능성을 내포하는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 남성다움과 동일시되는 집은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을 배제하면서 이루어진다. 츠리는 은닉되어 있던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을 이끌어냄으로써, 공/사적영역의 이분화에 따른 젠더인식에 균열을 가한다.

청망망이 특히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그녀가 여성이기 때문이었다. 이전에 여성은 집을 배분하는 데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사회는 줄곧 남자는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는 시집간다는 전통적인 원칙을 지켜 왔기에, 집은 남성에게 주는 것이었다. (중략) 회사는 일부러 이 전통적인 원칙을 깨뜨렸는데, 청망망을 모델로 하여 회사의 모든 여성들이 업무에서 능력을 발휘하도록 격려하기 위함이었다.(329쪽)

인용한 글은 청망망이 회사로부터 능력을 인정받아 상으로 '집'을 받은

15) 이영자, 「가부장제 가족의 자본주의적 재구성」, 『현상과 인식』 102호, 2007, 75쪽.

것에 대한 설명이다. 여기에서 ‘집’은 여성/아내인 망망의 사회경제적인 능력을 상징한다. 은닉되어 있던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이 드러남으로써, ‘크고 깨끗한 집’은 더 이상 남성다움을 전유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긍정이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집은 남성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회적 통념을 회사 측이 ‘일부러’ 깨뜨린 이유는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에 대한 인정과 격려로, 공적/사적영역의 분할에 따른 남성과 여성의 젠더규정이 유효하지 않음을 반영한다. 이는 공적/사적의 분리가 젠더 이분법의 틀이 되어, 남성과 여성의 본성 규정에 서부터 남성과 여성에게 허용되는 공간범위까지 결정하는 강력한 관습이 된 것에 대한 츠리식의 거부라 할 수 있다.<sup>16)</sup> 그런데, 집이 남성다움을 전유하지 않게 될 때, 집은 남성자아에게 존재위기로 다가온다.

까오용은 술잔을 들고 아내와 건배했다. “축하해!”

까오용은 축하해라고 말했지, 우리 축하하자라고 말하지 않았다.

“고마워!”

까오용은 한 모금 마시고 애써 한 번 웃음을 짓고는 햇빛 아래에서 술잔을 빙빙 돌렸다. 포도주의 붉은 색이 빛에 의해 갈라져서 흥보석처럼 반짝였다.

까오용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머리 스타일 정말 예쁘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고마워!”

청망망도 웃었다. 청망망이 말했다. 까오용,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까지 독일어 공부를 계속할 수 있었어. 당신이 아니었으면, 틀림없이 계속하지 못했을 거야. 내가 야간학교 다니기 시작할 때 당신이 자주 나 데리러 오던 것 기억해? 그러니, 사실 이 집은 당연히 우리 둘의 것이야.

까오용은 계속해서 술잔을 돌리면서 흘린 듯이 술잔을 응시하고 있었

16) 이 분리에 의하여 공적인 남성은 외향적이고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주체가 되며, 공적인 공간의 주인이 된다. 사적인 여성은 내향적이며 주관적이고 감성적인 주체로 규정되며 사적인 공간에 머무는 것이 정당화되었다. 여성이 사적인 영역에 귀속된다는 이 가정은 여성이 공적인 학문의 주체나 대상이 되는 것을 오랫동안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적 영역에서 여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와 관습을 정당화했다. 도린 매시 지음,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55쪽.

다. 까오용이 말했다. “망망, 당신이 사람 마음 잘 이해하는 거 고마워. 그건 당신의 가장 큰 장점이야. 그렇지만 가장 큰 결점이기도 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이해해야 해. 은혜를 베푸는 것은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태도야, 알아?”

청망망은 서둘러 답했다. “아니야!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는 생각은 없어.”

그들의 대화는 다시금 곤경에 빠졌다. 청망망은 술잔을 내려놓았다. 크나큰 즐거움이 그녀의 태도 가운데 조금씩 줄어들었다. 현실은 그들을 갈라놓고 있었다. 이전에 그들은 집에 대해서 공통적인 이상을 갖고 있었다. 이 이상 속에서 청망망은 자연스럽게 까오용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까오용의 모든 노력과 분투에는 아내와 아이를 위해 더 좋은 집을 얻자는 게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갑자기 집이 생겼는데, 집 주인은 뜻밖에도 청망망이다. 이상의 꽃이 갑자기 청망망의 머리 위에서 활짝 피었다. 이상은 분열했다.(330-331쪽)

인용한 글은 아내인 청망망이 그 능력을 인정받아서 포상으로 ‘집’을 분배받는 후, 그들 부부의 심리를 묘사한 부분이다. 인용문에서 나타나듯, 부부의 꿈이 실현되었음을 축하하는 저녁식사 자리는 축하와 기쁨으로 넘쳐나지 않는다. “우리 축하하자”가 아닌 “당신 축하해”라는 까오용의 말에는 아내가 마련한 집을 그들의 집으로 수용하지 못하는 남편의 불편한 심리가 담겨 있다. 그의 불편함은 그에 대한 아내의 고마움을 “높은 데서 내려다보는 태도”의 발로로 치부하는 데에서 절정에 이른다. 이러한 남편의 불편한 심리는 ‘집’을 매개로 하는 남편과 아내의 질서가 전복된 것에 대한 불편함이다. ‘집’을 매개로 하는 이들의 공통적인 꿈에서 그 꿈을 실현하는 주체는 남편 까오용이다. 까오용이 볼 때, 그 꿈이 청망망에 의해 실현되었다는 것은 곧 그 주종관계의 무너짐 내지 전복이다. 이때 ‘집’은 그가 남성다움의 훼손을 경험하는 장소로 변모하는 것이다. 남성다움의 훼손을 의미하는 집의 장소성은 까오용이 선천(深圳)으로 떠남을 통해 구체화된다. “까오용에게 있어 선전은 일개 도시가 아니라, 자유이고 해방이며 가능성”이다(348쪽) 선전에 대한 그의 장소감은 역설적으로 ‘집’에 대한 그의 장소감이 무엇인지를 짐작케 한다. ‘크고 깨끗한 집’의 실현 주체로서 까오용이 집에서

“규칙적이고 평화로우며 따뜻”함을 경험했던 것을 떠올려보면, 그의 남성성이 변모함에 따라 집의 장소성도 함께 변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츠리는 ‘집’이 남성다움과 동일시될 때 배제되었던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아내를 표면에 드러냄으로써 여성성을 재의미화 하는 동시에, 남성다움을 전시하는 장소로서 ‘집’의 의미를 재구성한다. 물론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성)의 발현이 남성다움의 위기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이분화와 젠더 수직화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을 ‘집’으로 끌어왔다는 것은 여성자아의 ‘떠남’을 통해 ‘집’에 각인된 젠더에 저항하는 게 아니라, ‘집’을 탈젠더의 장소로 재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바로 여기에 ‘집’에 포개진 젠더를 사유하는 츠리의 독특한 시선이 자리한다.

## V. 나오면서

이상, 츠리 소설을 대상으로 하여, ‘집’의 의미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츠리는 신분의 부호로서 집과 젠더가 수행되는 장소로서 집에 주목하고, 여기에 각인된 고정적인 인식을 해체하고자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첫째, 신분과 지위의 상징으로서 ‘집’의 장소성을 재구한다. 츠리는 개인의 신분을 상징하는 부호로서 ‘집’이라는 장소가 지식인적인 것과 소시민적인 것으로 이분화 되고, 각각 문명/비문명, 지식/지식 없음, 정신/반(反)정신, 우/열이라는 대립적인 장소성을 부여받고 있음에 주목한다. 그녀는 우월성을 속성으로 하는 ‘집’의 이면에 자리한 불합리성과 불공정을 발견함으로써, 신분에 따라 이원화되고 수직화된 집의 경계를 허문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계 허물기를 통해, 지식인(적)/소시민(적)으로 이분화된 ‘집’을 각각 정신과 물질에 상응하는 것으로 배치하고 우열을 논하는 데에서 비껴가면서,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는 신분과 지위의 표상으로서 ‘집’이라는 장소에 각인된 물질성과 정신성에 대해 동등하게 가치부여를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전통적인 젠더관념과 젠더질서가 (재)생산되는 장소로서 '집'을 해체한다. 이는 두 가지 측면을 통해 이루어진다. 하나는 사적영역으로서 '집'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적영역으로 확장하면서, 공적/사적영역의 경계를 허물고 여성성을 재의미화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남성다움의 동일시로서 '집'의 장소성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남성다움과 유착한 '집'은 강력한 남성성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남성성의 훼손을 상징하는 장소가 되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집'의 이러한 양가성이 은닉되고 배제되었던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성)을 드러내면서, 남성다움을 전유하는 '집'의 젠더질서 및 젠더관념을 전복하고 있다는 데 있다.

기실 전통적인 젠더(재)생산의 장소로서 '집'에 대한 해체는 중국현대여성서사에서 여러 방식으로 끊임없이 시도되어왔다. 츠리는 공적영역에서의 여성(성)의 발견을 통해, 젠더화된 '집'의 해체를 넘어 젠더화된 '일상'에 대한 해체를 시도한다. '집'을 탈젠더화의 장소로 재구성하면서, 공적/사적으로 분할된 일상이 각각 남성(적)/여성(적), 독립/의존, 권력/권력의 부재 등으로 이원 대립화되는 구조를 해체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츠리 서사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

## ■ 참고문헌

- 도린 매시 지음, 『공간, 장소, 젠더』, 정현주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5.
- 린다 맥도웰, 『젠더, 정체성, 장소』, 여성과 공간 연구회 옮김, 한울아카데미, 2010.
- 애드워드 랠프, 『장소와 장소상실』, 김덕현·김현주·심승희 옮김, 논형, 2005.
- 이영자, 「가부장제 가족의 자본주의적 재구성」, 『현상과 인식』 102호, 2007.
- \_\_\_\_\_, 「남성성의 사회적 구성과 성의 정치」, 『성평등연구』 5호, 2001.
- 이-투 투안, 『공간과 장소』, 구동희·심승희 옮김, 도서출판 대운, 1995.
- 질리언 로즈, 『페미니즘과 지리학』, 정현주 옮김, 한길사, 2011.
- 「你是一条河」, 『池莉文集3』, 江苏文艺出版社, 1995.
- 「烦恼人生」, 『池莉文集2』, 江苏文艺出版社, 1995.
- 高小弘, 『成长如蜕-二十世纪九十年代女性成长小说研究』, 人民出版社, 2011.
- 戴锦华, 『涉渡之舟-新时期中国女性写作与女性文化』, 北京大学出版社, 2007.
- 邓玉环, 『中国当代文学中的"屋"与"人"』, 商务印书馆, 2014.
- 池莉, 「不谈爱情」, 『池莉文集2』, 江苏文艺出版社, 1995.
- 『水与火的缠绵』, 北京十月文艺出版社, 2010.

## ❖ ABSTRACT

A Study on the Meaning of 'House' in *Chi Li's* Novel

Choi, Eunjung

This paper examines how 'house' is meaningful in *Chi Li's* novel. *Chi Li* focuses on the house as a symbol of status, and the house as a place of gender performance. First, as a sign that symbolizes an individual's identity, 'house' is divided into intellectual and petit bourgeois, and constitutes binarism into civilization/non-civilization, knowledge/non-knowledge, spirit/anti-spirit and superior/inferior. In recognizing the irrationality and unfairness behind house symbolizing intellectual and petit bourgeois, *Chi Li* shatters the boundaries of the binaralized house as a sign of identity. Second, it dismantles the house as a place where gender is (re)produced. This is accomplished through two aspects. One is to re-define a private area house as a public area in which economic activity occurs. The house, as a public area in which economic activity occurs, becomes a place where women are reborn as economic entities. Passive, dependent femininity is reconstructed as independent and subjective. The other dismantles the definition of the house which is identified with masculinity. The house identified with masculinity is a place that symbolizes the socio-economic capacity of men. According to the socio-economic ability of males, the house is a place symbolizing the realization of masculinity, and it becomes a place to fix the gender order while reproducing masculinity. It may become a place to experience the weakening or defamation of masculinity. At that moment, the house becomes a place where the gender order of masculinity and femininity is overturned. Through this, *Chi Li* reconstructed, and in a sense revolutionized the definition of the house as a place where traditional gender is (re) produced by dismantling the definition of fixed femininity or masculinity.

Key Words : public sphere, private sphere, House, symbol, gender,  
(re)production, dissolution

■ 논문접수일 : 2017. 5. 10

■ 심사완료일 : 2017. 5. 31

■ 게재확정일 : 2017. 6. 2